

“5·18 역사현장 함께 걸으며 광주정신 위대함 배웠어요”



“빗속에서도 완주해요”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을 맞아 10일 열린 ‘제3회 5·18사적지 함께 걷기 축제’에 참가한 학생, 시민 등이 오월 사적지인 광주역 앞을 지나고 있다.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을 기념해 열린 ‘제3회 5·18 사적지 함께 걷기 축제’가 지난 10일 전남대학교 종합운동장에서 열렸다.

전남매일이 주최하고 광주시교육청이 후원한 ‘5·18 사적지 함께 걷기 축제’는 지난 2023년부터 시작된 행사로 1980년 5월 시민들이 계엄군의 폭력에 항거하며 민주주의를 외쳤던 현장을 걷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로 3회째를 맞았으며, 시교육청의 대표적인 참여형 5·18 행사로 자리잡고 있다.

이날 학생, 학부모, 직원 등 400여명은 전남대학교 정문(사적지 제1호)를 출발해 광주역 광장(사적지 제2호), 구 시외버스터미널 일대(사적지 제3호)를 경유하는 ‘햇볕코스’를 따라 걸었다. 이를 통해 1980년 5월의 역사와 그 의미를 되새기고 민주주의·인권·평화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었다.

올해 행사는 출발지에서 ‘5·18 희망 메시지 헬륨풍선 만들기’, ‘사적지 스텝 투어’ 등이 마련됐고, 도착지에서 미술공연과 팝콘 제공 버스 등 다양한 체험부스와 이벤트가 진행돼 학생들의 참여와 호응을 이끌어냈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5·18 사적지를 걸으며 민주주의와 인권, 공동체의 가치를 몸으로 배우는 오늘의 경험이 학생들에게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라며 “학생들이 5·18 광주정신을 올바르게 계승해 책임 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



“5·18 희생자 추모합니다” 대회 참가자들이 노란색 헬륨 풍선에 5·18희망 글귀를 쓰고 있다.



인증사진 ‘찰칵’ 출발에 앞서 대회 참가자들이 인증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김태규 기자



5·18 청소년 오케스트라 연주 도착지인 광주중앙초 체육관에서 광주5·18청소년 오케스트라가 ‘임을 위한 행진곡’, ‘투우사의 노래’ 등을 연주하고 있다.



신기한 미술공연 조성욱 미술사가 대회에 참가한 어린이와 공연을 하고 있다.



유아차 타고 참가 대회에 참가한 한 가족이 아이를 유아차에 태우고 걷고 있다.